

# 韓國海洋大學生的 問題傾向에 對한 調查研究

李 永 澤

目 次	
1. 序 言—研究의 必要性和 目的 및 課題—	2) 先行研究와의 比較
2. 理論의 背景과 先行研究의 概要	3) 領域別 各 問項에 對한 反應狀況
3. 研究의 方法	4) 上·下順位 30個問項에 對한 反應狀況
1) 對象 2) 道具 3) 經過	5. 結論과 提言
4. 結果와 解釋	要 約
1) 問題의 領域別 分布狀況	參考文獻

## 圖 表

表 1. 學年別 對象學生數	表 9. HF 領域 各 問項에 對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2. 各 問題領域에 對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10. MR 領域 各 問項에 對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3. 各 大學의 問題領域別 反應狀況	表11. FVE 領域 各 問項에 對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4. HPD 領域 各 問項에 對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12. FVE 領域 各 問項에 對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5. FLC 領域 各 問項에 對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13. CSM 領域 各 問項에 對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6. SRA 領域 各 問項에 對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14. 上順位 反應 15個問項에 對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7. SPR 領域 各 問項에 對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15. 下順位 反應 15個問項에 對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8. PPR 領域 各 問項에 對한 學年別 反應狀況	

## 1. 序 言 —研究의 必要性和 目的 및 課題—

廣義의 指導(Guidance) 或은 Counseling(相談)의 歷史는 廣意의 「教育」의 歷史와 더불어 始作되었다고 하겠다. 人間이 社會生活을 營爲하였을 때부터 教育이 始作되었다고 한다면, 被教育者로 하여금 그의 生活을 營爲하는데서 부딪치는 여러 問題를 成功的으로 解決하도록 돕는 活動인 指導 或은 相談<sup>1)</sup>의 歷史도 教育의 歷史처럼 悠久한 것이다. 이는 指導 或은 相談이 教育의 重要한 本質의 一部分 이르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나 專門인 教育方法으로서의 指導 或은 相談이 教育에 導入된 것은 極히 最近의 일에 不

1) 沈載炯, 學生生活指導研究所의 運營方案  
—教育大學 學生指導研究所를 中心으로—. 仁川教育大學 學生指導研究, 第三輯, 1975. 2. pp. 9~10

(2) 學生指導研究, 第1輯

過하다.<sup>2)</sup> 그리고 이런 뜻의 指導 或은 相談이 우리나라 教育에 導入된 것은 더욱 짧다.<sup>3)</sup> 그것도 처음에는 主로 初·中等教育에 局限되었고 그것에 對한 認識이나 活動도 微弱하였던 것 같다. 그러던 것이 大學에도 이에 對한 重要性이 認定되어 學生指導研究所가 設置된 것은 政治的騷搖가 한창이던 1962년이었고,<sup>4)</sup> 이어 大統領令<sup>5)</sup>으로 全國의 모든 國立大學(校)에도 學生指導研究所가 設置된데 이어 1974년에는 大學生의 生活指導를 教授가 分擔하는 擔任指導教授制를 實施하도록 規定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마침내 大學에 있어서도 教授에게 다만 教授(授業)와 研究 뿐만 아니라 學生生活에 對한 「指導」가 授業 못지 않게 重要한 義務로서 賦與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大學에 있어서 眞正하고 純粹한 意味의 指導(Guidance) 或은 相談(Counseling)은 外部로부터 強要된 하나의 形式的이고 귀찮은 義務인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深刻하고 廣範한 變化의 過程에 處해 있는 時代<sup>6)</sup>를 살고 있다. 오늘날의 産業과 社會의 새로운 構造의 急激한 變化로 因하여 提起되는 問題들은 現代人으로써 하여금 實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창하고 深刻한 生活에의 不適應問題에 直面케 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生活에의 不適應問題는 그 原因이 現代라는 時代性에서 오는 限, 唯獨 一般 既成 社會人에 局限되는 問題는 아니다. 그것은 社會의 모든 領域에 걸친 廣範하고 深刻한 共通의 問題로서 大學이라는 社會가 그 例外일 수는 없을뿐더러 大學生이 屬하는 世代의 特殊性은 오히려 生活에의 不適應問題를 惹起케 할 可能性을 더욱 많이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大學에서 이 問題를 重視하기에 이른 것은 教育의 重要한 本質로서의, 時代的, 世代的 必要로서의 指導(Guidance) 或은 相談(Counseling)의 性格에서 오는 結果가 아닌가 생각된다.

現代社會의 가장 큰 特徵인 高度의 科學과 技術의 發達<sup>7)</sup>은 現代社會로 하여금 靑少年들, 特히 젊은 大學生들에게 科學 技術에 對한 高度의 要請을 不知不識間에 強要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이를 一種의 被害意識, 所謂 “technological crisis”로서 받아들여 「人間的實存」(Human existence)이라는 이 를 아래 一切의 傳統的인 것, 一切의 既存의인 것을 否定하려는 傾向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既存社會의 틀 속에서 疎外的 周邊的 位置에 있었던 “youth”가 이제는 既存의 世代와 體制에 挑戰하려는 새로운 勢力을 形成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目睹하기에 이르렀다. “youth culture”, “youth power”, “youth revolution” 等等의 낱말들은 이제 우리에게도 生疎한 낱말로서만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時代的狀況下에서 大學教育도 集團化, 大量化 그리고 標準化(同型化), 均質化하여 갔고 이에 따라 教育의 重要한 屬性인 個別化의 要請이 威脅받고 있으며, 高度産業社會에로의 趨勢에 따

2) Frank W. Parsons가 Bostons에서 職業指導運動을 始作한 것이 1907年임.

서울교육대학 학생지도연구 제1집 p. 5

3)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와 文敎部가 生活指導教師의 訓練을 實施한 것이 1957年임. 上揭書 p. 5

4) 閣令 第455號 (1962. 12. 7)

5) 大統領令 第5005(1969. 8. 12)

6) E. H. Carr, What is History? 吉玄謨譯, 歷史란 무엇인가. 探求堂, 1972. 第6章

7) 上揭書 p. 176

은 「知識의 爆發」<sup>8)</sup>은 健全한 모탈과 醇化된 情緒의 바탕이 없는 主知主義化, 實利主義化의 傾向을 促進하고 있는 實情이다. 公共意識을 缺如한 個人의 立身揚名을 爲主로 한 教育, 師弟關係의 非人間化 等은 그러한 具體的인 表現의 一端이라 하겠다.

이러한 時代의 狀況과 教育의 狀況下에서 大學生들이 그의 生活을 營爲함에 있어서 부딪치는 問題를 스스로 解決토록 돕는 것을 主目的으로 하는 指導와 相談의 必要性은 그 어느 때 보라도 切實한 것이다.

이러한 學生指導는 大學의 責任만은 아니다. 大學 以外에 家庭・社會가 三位一體가 되어 實施하여야 할 問題임은 勿論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生活을 他一般 大學과는 달리 學生 全員이 寄宿舍內에서 營爲하고 있는 本 大學의 경우, 學生指導에 對한 學校의 責任은 相對적으로 더 크며 또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單位의 ガイ던스 活動이 始作되기 위해서는 學生들이 具體적으로 어떤 問題를 지니고 있으며, 그 內容은 어떤 것이고 그 傾向과 程度는 어떤가를 確認하는 일이 先行되어야 한다. 즉 ガイ던스 或은 카운셀링 活動의 先行作業으로서 가장 基礎的이고 必要한 일은 學生들이 主觀적으로 무엇을 「問題」로서 意識하고 있는가를 客觀적으로 把握하는 일이다.

本 大學에서는 擔任指導教授制가 他 一般大學(校)에서 實施되기 以前인 1971년에 이미 이 制度를 實施하여 每週 一回 以上 定期的으로 各 指導教授가 擔當 學生과의 面談 指導를 하여왔던 바, 이 경우 各 指導教授가 直面하는 難點은 學生들이 좀처럼 가슴을 열고 그들의 關心・苦惱・欲求 등을 表明하려 들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선 學生과의 對話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基礎資料를 確保 提供함으로써 學生面談 指導의 效果를 높이려는 것이 本 調查研究의 直接的인 動機였으나, 이제 本 調查研究가 노렸던 目的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各 指導教授의 面談・指導의 效果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1) 擔任 學生의 問題點을 손쉽게, 그러면서도 比較的 正確하게 發見할 수 있는 資料를 提供함으로써 各 指導教授로 하여금 擔任 學生 個個人의 問題點을 發見, 이를 面談 時의 適切한 話題로 設定할 수 있도록 利用케 하며 2) 各 指導教授로 하여금 自己 擔當의 小單位 學生集團 全體의 問題傾向을 把握할 수 있게 하고 이에 對한 指導方向 設定에 도움을 준다.

둘째로, 위의 學生 個個人과 各 指導教授 擔當의 小單位 學生集團의 問題를 綜合的 立場에서 蒐集・分析하여 本 大學 學生 全體의 問題를 把握하여 學生指導의 基本方向의 設定, 學生指導研究所의 事業計劃의 樹立 等を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한다.

위와 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本 調查研究는 다음의 研究課題를 究明하려고 하였다.

1. 本 大學學生들이 가지고 있는 問題는 各 學年에 따라 어떠한 問題領域에 얼마만큼 分布되어 있는가?

8) Freeley, Austin J., Argumentation and Debate, 2n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66, p. vii

(4) 學生指導研究, 第1輯

2. 本大學 學生들의 問題意識은 他 大學生의 그것과 比較하여 어떠한 特性을 가지고 있는가?
3. 本大學 學生의 苦悶(問題)은 具體的으로 어떠한 것들인가?
4. 本大學 學生이 가장 緊迫하다고 느끼고 있는 問題와 덜 緊迫하다고 느끼고 있는 問題는 具體的으로 무엇인가?

## 2. 理論的 背景과 先行研究의 概要

學生 個個人에 對한 情報을 蒐集하여 이를 組織·解釋하고 記錄하는 일을 中心으로 하는 學生 調查活動<sup>9)</sup>은, R. N. Hatch와 P. L. Dressel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學生들을 個別的으로 알고 理解할 수 있는 基礎를 提供하는 일인 까닭에 學生生活指導를 運營함에 있어서의 要諦가 되는 活動인 것이다.<sup>10)</sup> 그런데 個個人의 學生의 全 生活領域에 걸친 指導를 目標로 하는 生活指導<sup>11)</sup>에 必要한 個人 學生에 關한 情報은 部分的이거나 斷片的인 것이 아니라 全體的이고 綜合的인 性格을 띠어야 한다는 主張<sup>12)</sup>은 充分히 合理的이라고 생각된다.

學生問題에 關한 全體的이고 綜合的인 調查活動에서 使用되는 重要한 方法과 技術에 關하여 李榮德·鄭元植은 ① 觀察法(非形式的 觀察과 集中的 또는 定時的 觀察을 包含한다), ② 評定法(rating) ③ 社會測定法(sociometric devices), ④ 面接法(interview), ⑤ 自叙傳法(autobiography), ⑥ 事例研究法(case study), ⑦ 累加記錄法(cumulative record) 및 ⑧ 質問紙法(questionnaire) 등을 列舉하고 各 方法의 特色과 具體的인 有用性을 說明하고 있다.<sup>13)</sup>

그런데 學生問題 調査에 있어서 위에서 列舉한 諸方法中 어느 方法을 採擇하든 間에, 그것이 特定의 單位課題에 對한 集中的인 作業이 아닌 限, 한 個人에 關한 全體的이고 綜合的인 把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A. E. Traxler의 分類<sup>14)</sup>에 따라 다음과 같은 諸領域의 情報들이 包含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 ① 家庭的 背景의 問題
- ② 거쳐 온 學校와 教育經驗의 問題
- ③ 知的能力 또는 學業適應의 問題
- ④ 여러 教科 領域에서의 成就도와 成長의 問題
- ⑤ 健康 및 身體的 發達上의 問題
- ⑥ 學校 밖에서의 生活經驗의 問題

9) 劉在奉, 生活指導論, 서울: 法文社, 1973. p. 23

10) Hatch, R. N. & Dressel, P. L.; Guidance Service in the Secondary School, Dubuque, Iowa: W. M. C. Brown Co., 1953, p. 24.

11) 尹八重, 가이드스카운슬링, 서울: 教育出版社, 1973. 9. 12.

12) 李榮德·鄭元植, 生活指導의 原理와 實察, 서울: 教育圖書, 1972, p. 73.

13) 李榮德·鄭元植, 上揭書 pp. 73~98

14) Traxler, A. E., Techniques of Guidance,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45, pp. 20~25.

- ⑦ 教育的 職業的 興味の 問題
- ⑧ 特殊 適性の 問題
- ⑨ 人性的 心理的 問題
- ⑩ 社交, 對人關係의 問題
- ⑪ 性的 問題
- ⑫ 將來의 抱負 또는 計劃의 問題

勿論, 大學生들의 問題傾向은 個人的 內面的 要因과, 家庭環境·學校의 教育方針·專攻學科의 性格 等의 外部的 要因에 依存할 뿐 만 아니라, 하나의 問題傾向은 規範의 性格과 記述의 性格을 同時에 갖는 複合的인 것이므로, 問題意識의 構造는 記述的, 數量的으로 解明될 수 있는 것 以上の 意味을 지니게 된다<sup>15)</sup>는 것은 充分히 認識되어야 한다.

그러나 內容에 있어서 위와 같이 廣範圍한 問題를 包含하면서도 比較的 短期間 內에 많은 學生을 對象으로 實施하는 調查活動의 境遇에는 一般的으로 質問紙法의 活用度가 가장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質問紙法에 依하여 大學生 問題를 診斷하는 道具로서는 R. L. Mooney 等에 依하여 製作 發展된 “Mooney Problem Check-List” (College Form)<sup>16)</sup>가 大學生들의 問題傾向을 全体的이고 綜合的으로 把握하는데 하나의 基準이 되고 있다.<sup>17)</sup> Mooney의 이 “MPCL”(大學生 問題체크리스트)은 그 속에 包含된 問題의 廣範圍성과 組織性, 그 製作過程의 慎重성과 周到性<sup>18)</sup> 등으로 因하여, 世界各國의 教育現場에서 受容되어 本格的이고 科學的인 心理檢査 活動의 前提의 作業으로서 學生指導 및 相談活動에 有效한 基礎資料를 얻는 道具로서 가장 널리 活用되고 있다.<sup>19)</sup>

元來 Mooney의 “MPCL”에서는 學生問題가 11個 領域으로 分類되어 있고, 各 領域 마다 30個 問項 씩이 配置되어 總 330個의 問項으로 構成되었으며, 그 應答方式은 ① 먼저 처음부터 한 번을 차례로 읽어 내려가면서 學生의 苦悶이나 關心事에 合致되는 問項에 밑줄을 치고 ②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읽어 가면서 學生이 크게 苦悶이나 關心事에 合致된다고 생각되는 內容을 表示하고 있는 問項을 가려 잡아 그 問項의 番號에 ○표를 치도록하는 두 가지 反應形式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Mooney의 “MPCL”은 學生問題의 有無와 그 一般의 傾向 外에도 問題性의 程度까지도 一旦 測定하여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年 서울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가 “MPCL”을 完譯하여 “대학생문제 체크리스트”<sup>20)</sup>로 使用·報告한 以來 各 大學의 學生指導研究所를 中心으로 하여 學生問題에 關한 實證的인

15) 金炳廈·金宰一: 大學生 問題 체크 리스트에 의한 在學生의 問題傾向, 學生指導研究, Vol. 1, No. 1. p. 33 (韓國社會事業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3)

16) Mooney, R. L. & Gordon L. V., Manual for the Mooney Problem Check-List, New York: Psychological Corporation, 1960.

17) 金炳廈·金宰一, 上掲書 p. 33.

18) 이 Mooney의 “MPCL”은 世界各國의 大學生들로부터 無作爲, 無統制的인 狀態에서 그들의 온갖 問題들을 無制限 蒐集하였으며, 이를 道具로서 完成 確定할 때까지 實驗用 檢査만 하여도 세 차례나 거친 바 있었다.

19) 李明子: 大學新入生의 問題에 關한 研究. 학생지도 연구, Vol. 7, No. 1. p. 29 (경북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1974)

20) 이관용, 대학생문제에 관한 일 연구, 學生研究, Vol. 7, No. 2, pp. 27~37. (서울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1970. 6)



(6) 學生指導研究, 第1輯

調査研究가 活潑히 進行되어 왔다. 그런데 이들 研究에서 使用된 道具는 基本的으로는 “MPCL”에 依存하면서도 그 程度에 있어서 若干의 差異를 보이는 바, 이제 그 類型을 大体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즉

① 서울大學校(1966, 1970)<sup>21)</sup>, 서울教育大學(1972)<sup>22)</sup>, 韓國社會事業大學(1973)<sup>23)</sup> 등의 경우와 같이 “MPCL”을 翻譯 또는 翻案 使用하여 그 原案에 比較的 忠實한 경우.

② 釜山大學校(1966)<sup>24)</sup>, 成均館大學校(1971)<sup>25)</sup>, 公州師範大學(1973)<sup>26)</sup>, 仁荷大學校(1974)<sup>27)</sup> 등의 경우와 같이 比較的 廣範圍한 修正 또는 補完作業을 거쳐 “MPCL” 原案과는 그 內容과 組織에 있어서 相當한 差異를 보이는 경우.

③ 慶北大學校(1974), 梨花女子大學校(1974) 등의 경우와 같이 그 道具에 各各 「K.N.U-Mooney 大學生 問題 체크리스트」<sup>28)</sup> 「대학생 문제 진단 검사 — 여자 대학생 용 —」(황응연·전찬화·김재은 공동제작)<sup>29)</sup> 등의 獨自的인 特定名稱을 付與하는 등, “MPCL” 原案에 對하여 獨自的인 立場을 取하는 경우의 세 가지 類型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基本的으로는 아직도 Mooney의 “MPCL”을 그 根據 또는 基本資料로 使用되었음에 틀림 없을 것이다. 本 研究의 立場도 위의 ②의 類型에 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最近 10餘年 사이에 成就된 위와같은 研究들에 依하여 우리나라 大學生問題가 漸次 体系的으로 밝혀지고 있거니와, 金學守·安昌圭는 이들 여러 研究의 結果를 綜合하여 우리나라 大學生의 個人的 問題를 身體, 性格, 家庭(經濟), 學校生活, 親友 및 餘暇善用, 性, 將來, 道德 및 信仰 問題 등의 8個 領域으로 分類하고, 特히 이들 中, 學生이 스스로 느낀 問題로서 가장 큰 問題는 親友 및 餘暇善用의 問題이며, 그 다음으로 經濟 및 生活條件, 學校生活, 性格問題의 順位임을 밝혔으며<sup>30)</sup>, 全國의 教育大學生들의 問題만을 綜合的으로 研究한 鄭駟煥은 그의 한 研究論文에서 教育大學生들의 問題를 身體, 性格, 家庭, 學校, 餘暇, 異性, 將來 問題 등 7個 領域으로 分類하였는데 그 中에서 特히 學生의 問題와 大學選擇(入學)과의 相關關係, 學生의 諸不滿과 現實參與와의 相關關係를 밝혀 大學生의 課外活動에 對한 指導策의 必要性을 強調한 바 있다.<sup>31)</sup>

21) 서울 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大學生 問題 체크리스트 結果, 學生研究, 1966, Vol. 3 pp. 41~46.

22) 尹八重; 서울 教育大學生이 지닌 問題의 內容과 程度, 학생지도연구, Vol. 1. p. 6. (서울教大 學生指導研究所, 1972)

23) 金炳廈·金宰一: 前揭書.

24) 李元浩; 大學生問題 체크리스트를 통한 在學生의 問題調査, 研究報. Vol. 3. p. 1 (釜山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66)

25) 한범숙·한덕용, 대학생문제조사, 학생지도연구, Vol. 1, pp. 3~12 (성균관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1971)

26) 愼鏞日, 師大生의 問題傾向 調査研究, Vol. 2, p. 34 (公州師大 學生指導研究所, 1973)

27) 愼鏞日, 仁荷大生의 問題傾向調査研究, 學生指導研究, Vol. 1, p. 38 (仁荷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4)

28) 李明子; 前揭書

29) 安德里; 本校生의 問題傾向調査, 學生 生活研究, Vol. 10, p. 114 (梨花女子大學校 學生生活指導研究所, 1974)

30) 金學守, 安昌圭; 大學生의 個人的 問題에 對한 考察, 학생지도연구. Vol. 5, No. 1, pp. 38~42 (경북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1972)

31) 鄭駟煥; 大學生들이 지니는 問題에 對한 小考, 教大生을 中心으로, 學生指導研究, Vol. 2, pp. 31~39 (仁川教育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4)

끝으로 다음의 두 가지 事項을 附記한다.

① 이 論文은 本 大學 學生의 問題傾向의 大體의인 把握만으로써 그 研究作業을 限定하였다. 따라서 '問題' 傾向에 對한 客觀的 事實與否의 究明과 그에 對한 보다 더 具體的인 解決方案等은 앞으로의 研究課題로서 남겨둔다.

② 이 論文 中에서의 統計値가 指示하는 集團 間의 差에 對한 檢證은 省略하였다. 그러나 이 省略으로써 이 論文中的 百分率의 意義와 그 一般的 傾向에 對한 正確性은 損傷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研究 方法

#### (1) 對 象

調查를 實施한 對象은 1975年 5月 末現在의 本 大學 在學生 全員이었다. 그 中 特別한 事由로 學校를 떠나 있던 學生을 除外한 總827名(在籍學生의 95%)이 調查에 應하였던 바 그 具體的인 內容은 <表1>과 같다.

<表 1> 學年別 調查對象 學生數 (1975. 5. 末 現在)

學 生	學 年				計	專 門 *
	1	2	3	4		
在 籍 學 生 數	295	195	191	187	867	195
對 象 學 生 數	281	193	179	174	827	194
百 分 比	95.3	99.0	93.7	93.0	95.3	99.5%

\* 이 調查 實施 期間中 專門學校 第2學年學生은 乘給實習中이었으므로 專門學校의 調查對象者는 第1學年 學生만에 限하였음.

이 調查研究의 對象集團인 本 大學(本科)의 學生은 國內의 他一般 大學生들과는 다른 特性을 지니고 있다는 點에 注意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 調查研究와 關聯하여 本 大學의 學校生活에 있어서의 制度的 特殊性을 要略하면,

1) 卒業 後 法定의 資格(海技士)과 專攻(航海 또는 機關) 分野에의 服務義務가 주어지므로 그들의 將來의 進路가 確定的이다.

2) 在學中 授業料가 免除되고 被服과 宿食이 官給된다.

3) 一定한 實習期間을 除外하고는 全學生이 거의 全教育期間을 通하여 校內的 寄宿舍에 入舍하여 生活訓練을 받으면서 團體生活을 營爲한다.

4) 校內外에서 制服을 着用하여야 하며, 入學과 同時에 全員이 海軍豫備士官生(ROTC)으로 編入되어 所定의 軍事教育을 받는다.

5) 이에 따라 學校生活에 있어서 相對的으로 嚴格한 規範的 統制下에 놓이게 된다는 點 등이다.

이 調查研究는 그 實施過程에서 本 大學에 附設되어 있는 海洋專門學校와 海技士短期養成所의 學生들에 대하여서도 一括的으로 調查를 實施하였으나, 이들 中, 社會的經驗・年齡 및 教育水準이 判

(8) 學生指導研究, 第1輯

異한 後者는 調查研究의 對象으로부터 除外하였다. 前者에 대한 調查結果는 各表의 末尾에 그 數値만을 밝혔다.

(2) 道 具

이 調查研究에서 使用된 道具는 『Mooney Problem Check-List』를 本 大學 學生들의 實情과 特性에 맞도록 翻案한 「大學生 問題 체크 리스트」이었다. Mooney의 原案은 前述한 바와 같이 11個 問題領域에 各 30個 問題씩, 모두 330個 問項으로 構成되어 있으나, 이 研究에서 翻案 使用한 체크리스트는 10個의 問題領域에 各 領域 마다 15個씩의 問項으로 簡素化되어 總 150個의 問項으로 짜여졌다. 따라서 採擇된 問項에 있어서도 그 內容이 고쳐진 것이 있으며 反應要領은, 無記名·非暗示의 方法에 따라 各者가 各 問項을 仔仔히 읽어 가면서 自己 自身의 知覺과 一致하던지 自己 自身의 苦悶이나 關心 거리와 關聯이 있다고 생각되는 項目의 番號 앞에 V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檢査時間은 原則적으로 制限하지 않았다.

이 체크리스트의 150個 問項을 10個의 問題領域別로 나눌 때 그들 各 問題領域의 名稱은 다음과 같다.

1. 健康과 身體의 發達(Health and Physical Development=HPD)
2. 經濟 및 生活條件(Finances and Living Condition=FLC)
3. 社會的 및 리크레이션活動(Social and Recreational Activities=SRA)
4. 社會的, 心理的關係(Social and Psychological Relations=SPR)
5. 個人으로서의 心理的關係(Personaly Psychological Relations=PPR)
6. 家庭과 家族(Home and Family=HF)
7. 道德과 宗教(Morals and Religion=MR)
8. 學業에의 適應(Adjustment to College Work=ACW)
9. 將來의 職業과 教育(Future-Vocation and Education=FVE)
10. 求愛, 性 및 結婚(Courtship, Sex and Marriage=CSM)

(3) 經 過

이 研究를 위한 學生의 問題傾向調查는 1975年 5月 9일부터 30日 사이의 期間中에 各 擔任指導教授에 依하여 自己 擔任學生集團別로 實施되었다. 그런데 이 時期는 新入生의 경우도 本 大學에서 每學期初에 新入生에게 實施하는 他大學 보다도 嚴格하고 苦된 特別訓練도 거쳤고 3個月의 學科授業을 正常的으로 實施하고 있었던 時期이므로 調查對象者(學生)는 本 大學의 正常的인 學校生活雰圍氣에 낯설지 않고 充分히 익숙하게 된 時期이었다.

또 25名~50名 單位의 同一學年, 同一學科의 小集團別로 各 擔任指導教授에 依하여 實施된 問題 체크리스트調查를 統計處理한 結果, 敍上한 바 同一學年, 同一學科에 屬하는 小集團의 問題傾向이 各己 다른 擔任指導教授에 依하여 各己 다른 日時에 實施되었음에도 不拘하고 거의 똑 같은 數値를



보여 주고 있다는 事實<sup>32)</sup>은 이 調查의 客觀性(妥當性)이 있음을 示唆하여 주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겠다.

蒐集된 資料는 統計處理를 거친 後, ① 學生의 問題傾向의 學年別 水準에 따른 各 問題領域別 分布狀況을 알아보기 위하여 各 問題領域에 대한 學年別反應狀況을 整理하고 ② 이를 他 大學生의 問題傾向과는 다른 本 大學生 特有한 問題傾向의 有無를 確認하기 위하여 他 大學의 調查結果와 比較하였으며, ③ 問題性의 具體的인 內容을 밝히기 위하여 各 問項에 대한 反應狀況을 領域別로 分析하였으며, ④ 끝으로 本校 學生이 가장 緊迫하다고 생각하는 問題가 무엇이며 該 緊迫하다고 생각하는 問題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上·下順位 反應 各 15個 問題씩을 찾아 내어 그 學年別 狀況을 考察하였다.

#### 4. 結果와 解釋

##### 1. 問題의 領域別 分布狀況

이 研究의 結果를 總括하는 뜻을 지닌 本 大學 學生의 問題傾向性의 領域別 分布狀況을 學年別로 整理하면 <表2>와 같다.

<表 2> 各 問題領域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學 年	領 域	HPD	FLC	SRA	SPR	PPR	HF	MR	ACW	FVE	CSM
1		4.9 <sup>①</sup> (9) <sup>②</sup>	16.0 (2)	16.8 (1)	12.8 (4)	9.4 (6)	4.6 (10)	6.7 (7)	13.7 (3)	9.2 (5)	5.9 (8)
2		4.9 (10)	16.3 (2)	16.5 (1)	11.4 (4)	9.9 (5)	5.2 (9)	6.5 (8)	12.4 (3)	9.9 (5)	7.0 (7)
3		6.5 (8)	17.3 (1)	14.8 (2)	11.6 (3)	9.2 (6)	5.5 (10)	5.7 (9)	11.3 (4)	11.0 (5)	7.1 (7)
4		5.4 (10)	16.5 (1)	14.7 (2)	10.7 (5)	9.4 (6)	6.0 (9)	7.4 (7)	12.2 (3)	11.0 (4)	6.7 (8)
全 体		5.4 (9)	16.5 (1)	15.7 (2)	11.6 (4)	9.5 (6)	5.3 (10)	6.6 (8)	12.4 (3)	10.3 (5)	6.7 (7)
專 門 <sup>③</sup>		5.0 (9)	17.0 (1)	16.0 (2)	12.0 (4)	9.1 (6)	3.7 (10)	6.5 (8)	13.1 (3)	10.7 (5)	6.9 (7)

註: ① 反應値는 % ② ( )안은 順位 ③ 專門學校는 1學年만임. 以下 諸表 같음

위 表의 數値에 따라 10個 問題領域 間의 分布順位를 보면,

① FLC(經濟 및 生活條件)→② SRA(社會的 및 리크레이션活動)→③ ACW(學業에의 適應)→④ SPR(社會的, 心理的關係)→⑤ FVE(將來의 職業과 教育)→⑥ PPR(個人으로서의 心理的關係)→⑦ CSM(求愛, 性 및 結婚)→⑧ MR(道德 및 宗教)→⑨ HPD(健康과 身體的 發達)→⑩ HF(家庭과 家

32) 本文 <表2> 各 問題領域에 對한 學年別 反應狀況 參照

(10) 學生指導研究, 第1輯

族)의 順으로서, 最大 16.5%~最少 5.3%의 範圍內에 分布되어 있다.

이 結果에서 다음의 몇 가지 點이 우리의 關心을 끈다. 즉

① 上·下의 分布範圍가 11.2%로서 比較的 넓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本 大學의 學生들이 지니고 있는 問題意識이 相對的으로 어떤 特定한 問題領域에만 偏重되고 있다는 事實과 함께, 集團成員間에 問題意識의 強한 同質性을 示顯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만큼 個人差 또는 學年·學科 間的 差異가 적다는 事實을 意味한다.

② 그러나 全体的으로 보아 第1順位와 第2順位인 FLC와 SRA 間的 反應值의 差는 不過 0.8%이며, 이를 다시 學年別로 보면 오히려 1·2學年은 SRA가 第1順位인데 3·4學年에 와서 FLC가 상당히 큰 反應差로 第1順位에 오르고 있다. 第1 및 第2順位의 反應差가 僅少하다는 것은, 이 두 領域이 그 問題性에 있어서 거의 對等한 比重을 갖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具體的으로는 本 大學의 學生들은 全体的으로 經濟 및 生活條件의 領域에 가장 많은 問題意識을 지니고 있으나 下級學年에서는 오히려 社會的 및 리크레이션活動의 領域에서 보다 더 強한 渴症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本 大學의 學生問題의 內容과 特色을 보다 더 鮮明하게 診斷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先行研究들의 結果를 比較함으로써 좀 더 具體的으로 檢討하기로 한다.

2) 先行研究와의 比較

「MPCL」을 道具로 使用하여 實施한 國內外 他 大學의 主要 先行調查結果들과 本 調查結果를 對比하면 <表3>과 같다.

<表 3> 各 大學의 問題領域別 反應狀況

大學	領域	HPD	FLC	SRA	SPR	PPR	HF	MR	ACW	FVE	CSM
海 洋 大		5.4 (9)	16.5 (1)	15.7 (2)	11.6 (4)	9.5 (6)	5.3 (10)	6.6 (8)	12.4 (3)	10.3 (5)	6.7 (7)
海 洋 專		5.0 (9)	17.0 (1)	16.0 (2)	12.0 (4)	9.1 (6)	3.7 (10)	6.5 (8)	13.1 (3)	10.7 (5)	6.9 (7)
서 울 大①		4.18 (7)	5.63 (2)	7.83 (1)	5.48 (3)	5.16 (4)	3.69 (9)	4.92 (5)	4.55 (6)	4.11 (8)	—
慶 北 大②		6.09 (10)	11.73 (2)	14.66 (1)	9.58 (5)	9.49 (6)	6.66 (8)	7.04 (7)	10.15 (3)	9.92 (4)	6.10 (9)
釜 山 大③		6.0 (9)	10.3 (5)	14.0 (1)	9.2 (6)	12.1 (2)	5.1 (10)	6.2 (8)	10.5 (4)	11.5 (3)	6.4 (7)
Colorado(美)大④		10 (5)	7 (7)	12 (3)	11 (4)	15 (2)	4 (9)	3 (10)	21 (1)	9 (6)	5 (8)

註 ①②③④는 各各 1個 領域 (CTP)이 除外되었음.

前記한 바 本校 全体學生의 問題傾向의 順位에 따라 이를 檢討하면,

1) FLC: 16.5%의 높은 反應值로 이 領域이 第1順位를 차지하고 있음이 本 大學 學生問題의 한

重要한 特色이라 하겠다. 大体로 우리나라 大學生들이 經濟的 要因을 中心으로 한 生活條件의 問題 領域에서 比較的 많은 苦惱에 부딪치고 있는 것 만큼은 確實하지만(서울大, 慶北大도 分布順位로서는 第2位를 차지하고 있다. <表3>參照) 學究의 生活을 그 本質로 삼아야 할 大學生으로서 다른 問題領域들에서 부딪칠 것으로 豫想되는 많은 問題들이 있어야 함에도, 이 領域(FLC)에서 이 처럼 壓倒的으로 높은 反應을 보이는 것은, 本大學의 學生을 理解함에 있어서 크게 注目되어야 할 事實이라고 생각된다. 이 FLC領域은 서울大學校와 慶北大學校가 다 第2順位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그 反應値는 下順位の 領域과 僅少한 差에 지나지 않으며 釜山大學校의 경우는 第5順위에 머물고 있으며, 美國의 Colorado大學에서는 第7順위에 처져 있는 領域이다. 本校의 全 學生들이 寄宿舍制度 아래 그들의 生活의 大部分을 學校內에서 營爲하여야 한다는 事實을 考慮할 때 위와 같은 學生들의 問題意識은 더 徹底히 科學的으로 檢討되어야 하겠고 이 點에 關하여 앞으로의 學生生活을 指導함에 있어서 特別한 關心과 配慮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SRA : 지금까지 報告된 研究들에 依하면 우리나라 大學生의 問題意識이 가장 強하게 나타난 分野가 바로 이 領域이었다<sup>33)</sup>. <表3>에 있어서도 國內 大學들은 모두 이 領域이 第1順位를 나타내고 있는데, 前述한 바와 같이 FLC의 強한 問題意識으로 因하여 이 問題領域이 第2順位로 물려서 있는 것이 本文學 學生問題의 한 特色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本大學 學生의 경우에도 社會的 및 리크레이션 活動 곧 「餘暇」의 問題는 그것이 第2順位라고 해서 第1順位の 것 보다 決코 少흔히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反應値로 볼 때에는 15.7%로서, 第1順位인 서울大學校의 7.83% 慶北大學校의 14.66%, 釜山大學校의 11% 보다도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는 그 表面的인 順位에 不拘하고 充分히 注目되어야 할 것이다. 反應値 12%로써 第3順위에 머물러 있는 美國의 Colorado大學의 경우에 比하면, SAR領域에서 가장 많은 問題를 지닌다는 것이 우리 나라 大學生 問題 全般에 있어서의 한 特數의 傾向인데, 우리 나라 大學生 一般의 平均水準을 上廻하는 反應을 나타낸 本大學의 경우는 그 學生 問題에의 接近케 있어서 第1順位の FLC 問題領域 못지 않게 重要한 課題로 다루어져야 할 것임을 示唆하고 있다.

3) ACW : 反應値에 있어서는 前述한 第1,2順位인 두 領域에 比하여 많이 떨어진 12.4%로서, 本大學에서 第3順位를 차지하는 問題領域이다. 이 問題領域에 對한 本大學生의 反應은 順位에 있어서는 서울 大學校를 除外한 國內 他 大學과의 比較에서 뚜렷한 差가 發見되지 않는다. (慶北大 10.15%, 第3順位, 釜山大 10.5%, 第1順位) 이로 미루어 보아 大体로 우리 나라 大學生들은 學業에의 適應問題에 있어서도 相當한 苦衷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大學校에서는 이 領域이 第3順位인데 Colorado大學은 反應値 21%로서 단연 (第2順位는 겨우 15%) 第1順位の 問題領域으로 呼訴되고 있다는 事實은 우리에게 大學生 教育問題에 關한 여러 가지 檢討點이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4) SPR : 社會的 心理的 關係의 領域에서 經驗하는 大學生들의 問題性向의 質과 量은 國內外를 莫論하고 거의 비슷한 傾向인 것으로 보인다. 本大學에서는 第4順位, 서울大學校가 第3順位, 慶北

33) 金學守·安昌圭 上揭書 및 鄭顯煥 上揭書 參照

(12) 學生指導研究, 第1輯

大學校와 釜山大學校가 各各 第5順位와 第6順位이며, Colorado大學은 第4順位이다. 따라서 이 領域에 있어서는 本大學의 뚜렷한 特色은 發見되지 않는다.

5) FVE : 將來에 대한 問題領域에 있어서는 서울大學校를 除外한 國內의 他 大學生들에 比하여 比較的 安定된 現象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Colorado大學은 第6順位이고 서울大學校는 第8順位인데도 本大學에서는 第5順位로서 問題意識의 分布狀況이 10個 領域 中에서 아직도 前半部에 屬하여 있다는 事實은, 本大學의 設立目的 및 教育目標을 감안할 때, 앞으로 學生들에 대한 보다 더 積極的인 海洋思想・使命感 昂揚의 必要性和 아울러 適性 또는 人性 其他 科學의 心理檢査 등을 通한 보다 더 徹底한 接近의 必要性이 있음을 示唆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6) PPR : 本大學의 學生들은 이 問題領域에 있어서는 慶北大學校의 경우와 그 順位나 反應値가 거의 一致하는 한편, 第4順位인 서울大學校와 美國의 Colorado大學과 釜山大學校의 第2順位와 比較하면 훨씬 問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示唆하여 준다.

7) CSM : 異性問題의 領域에 있어서는 本大學의 경우에도 별 다른 特色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領域의 問題에 대하여 女子大學生의 경우가 一般的으로 훨씬 銳敏하다는 事實<sup>34)</sup>을 考慮한다면, 男子學生만으로 構成된 本大學에서 全体 分布의 順位가 第7위로 나타난 것은 男女共學인 釜山大學校의 第7順位, 慶北大學校의 第9順位와 比較할 때 相對적으로 問題가 많은 편이라고 풀이된다.

8) MR : 本大學의 學生들은 國內의 他 大學生들에 比하여 道德 및 宗教의 問題에서 比較的 單純하다는 結果를 나타내고 있다. 이 領域에서 서울大學校는 第5順位, 慶北大學校는 第7順位이며 釜山大學校는 本大學과 같은 第8順位인데, 美國의 Colorado大學은 最下 順位인 第10位를 記錄하고 있는 것은 美國社會의 精神的 風土나 그 學生들의 價値觀과 關聯하여 吟味해야 할 現象이다.

9) HPD : 이 問題領域에서 本大學의 學生들이 느끼는 問題性은 第7順位인 서울大學校 보다는 적 으며, 第10順位인 慶北大學校 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領域의 問題를 診斷함에 있어서는 本大學의 學生들은 入學 當初부터 嚴格한 身體의 基準에 따라 選拔되었고 在學中에도 相當한 水準의 健康維持를 制度的으로 要求받고 있다는 事實<sup>35)</sup>을 勘案하여야 한다. 즉 本大學의 學生의 이 問題領域에서 보이는 反應은 本大學이 學生들에게 期待하는 水準에 到達코자 努力하는 學生들의 苦惱에 따라 變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特히 이 問題領域에 關한 限, 他 大學과의 皮相的인 數量的 比較만으로써는 이 問題를 適確하게 解釋할 수 없을 것이다.

10) HF : 이 領域의 問題는 本大學의 學生問題에 있어서 最下順位인 第10位를 보이고 있다. 第8順位인 慶北大學校, 第9順位인 서울大學校 보다 그 問題性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學生全員을 嚴格한 寄宿舍制度 밑에 그들의 日常生活의 大部分을 校內에서 營爲시킴으로써 卒業後의 「離家庭性」<sup>36)</sup>이 強한 乘船海上生活에 適應시키기 위한 本大學의 教育目標과 關係가 있다. 이러한 點에 關한 限, 家庭 및 家族的 問題領域에서 本大學의 學生이 最下順位의 問題性을 보이는 것

34) 安徳子・前掲書 p. 115. 梨花女大에서는 第3順位이다.

35) 入學要綱의 身體檢査規準은 海軍士官學校의 身體檢査合格規準과 同一함. 또 在學中 每年 身體檢査를 實施하여 不合格時는 除籍됨.

36) 李俊秀, 國際船員法研究, 1969 (法學博士 學位 請求論文) p. 1.

韓國海洋大學生의 問題傾向에 對한 調查研究 (13)

은 上述한 바 本大學의 教育方針이 所期의 成果를 거두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제 지금까지 檢討한 바에 따라 本大學 學生問題의 主要한 特色으로 생각되는 바를 다시 要略하면 다음과 같다.

1. 問題意識의 偏重의인 傾向이 짙다.
2. 問題意識에 있어서 全体 學生 間에 同質性이 強하다. (但 第3學年 學生만이 同質性 中에서도 若干의 異質의인 傾向을 보일 뿐이다)
3. HPD, SPR, ACW 등 몇 개의 領域에 있어서 第3學年生만이 若干의 差를 보일 뿐, 全体的으로 學年差도 매우 僅少하다.
4. 다만, 分布順位 第1位의 問題領域(FLC)만이 上·下級生 間에 對照的으로 나타나 있다. 즉 第3,4學年生은 FLC에, 第1,2學年生은 SRA에 第1順位로 反應하고 있는데, 이는 校內生活에 있어서의 統制的 狀況과 個人生活에 있어서의 現實的 欲求의 變化趨勢를 말하여 주고 있다. 즉 統制를 比較的 強하게 받는 低學年生은 SRA에 強한 反應을 보이다가도 統制를 比較的 弱하게 받는 高學年生은 FLC에 보다 強한 反應을 보이고 있다.
5. 全体的으로 보아 第1順位인 FLC와 第2順位인 SRA에 顯著히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他大學生들의 一般의 傾向과 水準을 壓倒하고 있다.
6. 本校學生들의 問題意識은 여러 가지 側面에서 本大學 環境의 制度的 特殊性을 強하게 反映하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다.

3. 領域別 各 問項에 대한 反應狀況

大學生의 個人的인 問題를 陳述한 150個 問項 全体에 대한 本大學 學生들의 反應 樣相을 問題領域別로 整理하면 <表4>~<表13>과 같다.

以下 이들을 各各 檢討하기로 한다.

1) 健康과 身體的 發達(HPD)

<表 4> HPD領域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問 項	學 年				全 体	專 門
	1	2	3	4		
1. 운동이 부족하다.	9 (9)	15 (6)	42 (1)	28 (2)	24 (3)	20 (4)
2. 담배를 많이 피우는 편이다.	23 (2)	21 (3)	33 (2)	22 (4)	25 (2)	29 (2)
3. 용모나 체격에 매력 없어 마땅치 않게 여긴다.	19 (4)	18 (5)	12 (6)	16 (6)	16 (6)	14 (5)
4. 체질이 약해서 잔병에 잘 걸린다.	10 (6)	13 (7)	8 (10)	11 (7)	11 (7)	10 (6)
5. 몸이 늘 괴롭다.	19 (4)	31 (2)	20 (5)	22 (4)	23 (5)	21 (3)



(14) 學生指導研究, 第1輯

6. 수면이 부족하다.
7. 시력이 약하거나 눈에 이상이 있다.
8. 소화기관에 이상이 있다.
9. 귀에 이상이 있다.
10. 피부 병이 있다.
11. 성기계통에 이상이 있다.
12. 관절에 이상이 있다.
13. 내분비선에 이상이 있다.
14. 심장에 이상이 있다.
15. 궤결핵이 있다.

37 (1)	42 (1)	33 (2)	28 (2)	35 (1)	52 (1)
10 (6)	13 (7)	9 (8)	9 (8)	10 (8)	8 (7)
21 (3)	20 (4)	24 (4)	30 (1)	24 (3)	8 (7)
4 (11)	4 (11)	4 (11)	6 (11)	5 (11)	7 (10)
6 (10)	12 (9)	9 (8)	7 (10)	9 (10)	6 (10)
1 (14)	3 (12)	3 (12)	3 (12)	3 (12)	5 (12)
10 (6)	10 (10)	10 (7)	9 (8)	10 (8)	5 (12)
2 (12)	2 (14)	1 (15)	2 (13)	2 (15)	8 (7)
2 (12)	3 (12)	3 (12)	2 (13)	3 (12)	2 (14)
1 (14)	3 (15)	3 (12)	2 (13)	2 (14)	2 (14)

이 領域에서는 全体 學生의 35%가 睡眠不足을 呼訴하고 있으며, 25%의 學生이 담배 많이 피우는 것을 걱정하고 24%의 學生이 運動不足과 消化障礙를 걱정하고 있음이 注目된다. 特異한 것은 運動不足의 問題는 上級 學年에서 顯著하고 下級 學年 特히 第1學年의 경우는 9%에 不過하며 15個 問項中 第9順位の 低順位이다. 이는 學內 生活課業의 學年差에서 오는 結果로 풀이된다. 第4學年生의 30%가 念慮하는 消化障礙의 問題와 極少하나 그 밖의 肺結核等 特定 疾病에의 呼訴는 專門的이고 個別的인 調査 或은 相談의 必要性이 時急함을 말하여 준다.

2) 經濟 및 生活條件(FLC)

<表5> FLC領域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5> FLC領域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問 項	學 年				專 門
	1	2	3	4 全 體	
1. 취미, 오락, 기타에 필요한 사소한 잡비가 부족하다.	51 (3)	65 (4)	66 (2)	57 (2)	53 (4)
2. 책을 사볼 돈이 부족하다.	38 (7)	51 (7)	55 (4)	48 (4)	32 (10)
3. 등록금 납부에 곤란을 느낀다.	18 (12)	28 (12)	31 (10)	32 (10)	28 (12)
4. 당장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	5 (15)	9 (14)	14 (15)	16 (15)	13 (15)

5. 나는 경제적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23 (11)	31 (11)	30 (11)	28 (12)	28 (11)	33 (9)
6. 나로서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9 (14)	8 (14)	20 (14)	17 (14)	14 (14)	14 (14)
7. 동생들의 학비가 걱정이다.	15 (13)	28 (12)	25 (13)	25 (13)	23 (13)	29 (11)
8.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43 (5)	56 (6)	52 (6)	42 (7)	48 (5)	40 (7)
9. 숙사생활에 불편을 느낀다.	43 (5)	50 (8)	39 (8)	38 (9)	43 (8)	66 (3)
10. 일상의 음식물이 입에 맞지 않다.	35 (9)	42 (9)	38 (9)	41 (8)	39 (9)	17 (13)
11. 교내생활에 있어서 보건·위생상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	50 (4)	70 (3)	54 (5)	47 (6)	55 (4)	53 (4)
12. 충분한 영양섭취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81 (2)	89 (1)	92 (1)	80 (1)	86 (1)	71 (2)
13. 정해진 식사시간을 기다리려면 자주 배가 고프다.	34 (10)	32 (10)	26 (12)	32 (10)	31 (10)	50 (6)
14. 학교 캠퍼스의 자연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36 (8)	59 (5)	42 (7)	48 (4)	46 (7)	40 (7)
15. 좀 더 많은 사색의 시간을 갖고 싶다.	84 (1)	78 (2)	66 (2)	49 (3)	69 (2)	84 (1)

이 領域은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本大學 學生問題에 있어서 가장 크게 나타난 問題領域이다.

이 領域의 15個 問項 中 가장 높은 反應率을 보인 問題는 12번의 “충분한 영양 섭취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로서, 全體 學生의 무려 84%가 체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해진 식사 시간을 기다리려면 자주 배가 고프다”에는 31%가 체크함으로써 第10順位에 처져 있는 것을 보면 이 點에 關한 學生들의 問題는 給食의 分量보다 그 質을 指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寄宿舍制度和 깊이 關聯하는 “營養不足”에 對한 學生들의 이 主觀的인 憂慮는 給食內容의 質을 客觀的으로 밝혀 주는 것만으로써도 그러한 學生들의 憂慮를 解消시켜 줄 수도 있을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事實上的 改善點의 有無를 確認하기 위하여서도 定期的인 營養學的 分析이 必要하며, 同時에 國家給食豫算의 制約下에서 學校當局이 이 問題에 對하여 얼마나 關心을 가지고 努力하고 있는가를 學生들에게 周知시키는 PR活動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이 領域에서 學生들의 두 번째로 큰 冀願은 “좀 더 많은 사색의 시간을 갖고 싶다”이다. 이 冀願은 下級學年 入學年 越等히 強烈하여 第1學年의 경우는 84%로서 “食事” 問題를 앞질러 第1位로 浮上되고 있다.

全體的으로 最高 86%, 最下 11%의 反應率을 보인 이 領域의 15個 問項은 모두가 다 그대로 學生들이 切實한 現實問題로 意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社會的 및 리크레이션 活動(SRA)

〈表 6〉 SRA領域內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問 項	學 年					專 門
	1	2	3	4	全 體	
1. 잘한다고 생각하는 특기가 없다.	56 (3)	63 (4)	46 (5)	48 (2)	53 (3)	45 (8)
2.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서툴다.	41 (7)	50 (6)	37 (7)	35 (7)	41 (7)	38 (10)
3. 사교활동을 너무 적게 한다.	46 (6)	65 (3)	54 (3)	44 (3)	52 (4)	50 (7)
4. 학생 그룹활동에 참가하는 일이 적다.	36 (9)	54 (5)	51 (4)	40 (5)	45 (5)	56 (5)
5.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32 (12)	35 (12)	21 (14)	28 (11)	29 (12)	25 (12)
6. 취미, 오락활동을 할 기회가 적다.	68 (1)	66 (2)	56 (2)	43 (4)	58 (2)	72 (1)
7. 음악, 미술, 기타 예술의 세계에 접촉할 기회가 적다.	64 (2)	78 (1)	72 (1)	58 (1)	68 (1)	59 (3)
8. 교제할 때 화제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39 (8)	50 (6)	26 (11)	27 (13)	36 (8)	41 (9)
9. 자연을 즐길 기회가 적다.	48 (5)	50 (6)	40 (6)	39 (6)	44 (6)	59 (3)
10. 읽고 싶은 책을 읽을 기회가 적다.	49 (4)	45 (10)	23 (13)	28 (11)	36 (8)	63 (2)
11. 운동경기의 재주가 부족하다.	34 (11)	36 (11)	25 (12)	30 (8)	31 (11)	26 (11)
12. 단정한 몸차림을 안하는 편이다.	18 (13)	22 (14)	27 (10)	18 (15)	21 (14)	13 (15)
13. 가끔 지나치게 술을 마신다.	16 (14)	25 (13)	33 (8)	30 (8)	26 (13)	24 (13)
14. 예의범절이나 에티켓생활에 미숙 하다.	12 (15)	19 (15)	19 (15)	26 (14)	19 (15)	14 (14)
15. 세상 돌아가는 것이 궁금하다.	35 (10)	46 (9)	29 (9)	30 (8)	35 (10)	53 (6)

領域別 分布 順位 第2位를 차지하고 있는 問題領域으로서 이 領域內의 反應特色은, ㄱ) 우선 68%로부터 19%에 이르는 範圍內에서 各 問項마다 相當히 高른 反應率을 나타내어 15個의 모든 問項이 學生들에 依하여 모두 意味있는 問題點으로 指摘되고 있다. ㄴ) 뿐만 아니라 15個 中 4個의 問項<sup>37)</sup>에 全體 反應率 50% 以上이 偏重되고 있음은 그 만큼 이 問題領域에 대한 本校 學生의 問題 傾向의 深刻性을 強하게 보여주고 있다.

37) 問項番號 1, 3, 6, 7. 參照

4) 社會的, 心理的 關係(SPR)

〈表 7〉 SPR領域內 各 問項에 對한 學年別 反應狀況

問 項	學 年				全 體	專 門
	1	2	3	4		
①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73 (1)	80 (1)	64 (1)	71 (1)	72 (1)	81 (1)
② 소심하고 수줍어 하거나 쉽게 기분이 상한다.	23 (9)	27 (9)	26 (7)	21 (8)	24 (9)	21 (10)
③ 남의 언행에 대하여 쉽게 기분이 상한다.	30 (6)	36 (6)	34 (6)	20 (9)	30 (6)	30 (6)
④ 생각(사상)이 다른 동료들과는 어울리기 싫다.	33 (5)	34 (7)	40 (5)	34 (5)	35 (5)	33 (5)
⑤ 나를 잘 이해하여 주는 사람이 없다.	26 (8)	34 (7)	23 (9)	16 (10)	25 (8)	26 (9)
⑥ 친구들 사이에서 열등감을 느낀다.	12 (12)	10 (13)	9 (14)	5 (14)	9 (14)	12 (13)
⑦ 남을 잘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편이다.	11 (13)	18 (11)	15 (13)	11 (12)	14 (12)	13 (12)
⑧ 남을 너무 지배하려고 한다.	9 (14)	10 (14)	18 (11)	8 (13)	11 (13)	12 (13)
⑨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적다.	14 (11)	16 (12)	17 (12)	13 (11)	15 (11)	15 (11)
⑩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	2 (15)	6 (15)	2 (15)	4 (15)	4 (15)	2 (15)
⑪ 학교생활에 있어서 상·하급간에 인간적인 이해가 어렵다.	68 (2)	74 (2)	57 (2)	63 (2)	66 (2)	68 (2)
⑫ 나는 학교당국이나 상급자의 요구를 비판하지 않는 편이다.	22 (10)	18 (10)	26 (7)	23 (7)	22 (10)	29 (7)
⑬ 학교 안에서는 가슴을 열고 고민을 털어 놓을 친구가 적다.	53 (3)	66 (3)	42 (4)	43 (3)	51 (3)	60 (3)
⑭ 나는 교내에서의 인간 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29 (7)	40 (5)	23 (10)	24 (6)	29 (7)	29 (7)
⑮ 상록을 해도 별 갈 데가 없다.	50 (4)	50 (4)	44 (3)	35 (4)	45 (4)	44 (4)

人間關係를 中心으로하는 社會的 組織生活에서의 心理關係를 다룬 이 問題領域에서도 상당히 強烈的 反應을 보이는 많은 問題들이 告白되고 있다.

이제 그 代表的인 몇 가지의 問題들을 옮겨 보면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72%), “학교 생활에 있어서 상·하급생간의 인간적인 이해가 어렵다”(66%), “학교 안에서는 가슴을 열고 고민을 털어 놓을 친구가 적다”(51%), “상록(외출)을 해도 별로 갈 데가 없다”(45%), “생각(사상)이 다른 동료들과는 어울리기 싫다”(35%)등, 學生들의 強迫觀念 孤獨感의 問題意識은, 實際로 그들의 生活指導를 담당하는 指導教授의 課題의 어려움과 責任의 무거움을 말하여 주고 있다.

〈18〉 學生指導研究, 第 1 輯

5) 個人으로서의 心理的 關係(PPR)

〈表8〉 PPR領域內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表 8〉 PPR領域內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問 項	學 年					專 門
	1	2	3	4	全 體	
① 공상을 많이 한다.	46 (2)	59 (1)	50 (1)	50 (1)	51 (1)	59 (1)
② 사소한 일에 잘 근심한다.	31 (4)	40 (4)	34 (3)	24 (7)	32 (3)	33 (5)
③ 결단성이 부족하다.	47 (1)	52 (2)	47 (2)	38 (2)	46 (2)	47 (2)
④ 우울한 편이다.	30 (5)	36 (7)	33 (4)	29 (5)	32 (3)	30 (6)
⑤ 신경질을 잘 부린다.	18 (8)	21 (10)	15 (11)	13 (11)	17 (11)	13 (11)
⑥ 자신력이 부족하다.	32 (3)	44 (3)	25 (7)	27 (6)	32 (3)	36 (3)
⑦ 잘 흥분한다.	13 (11)	21 (10)	19 (9)	17 (10)	18 (9)	14 (10)
⑧ 게으른 편이다.	23 (7)	37 (6)	27 (5)	38 (2)	31 (6)	22 (7)
⑨ 인내력이 부족하다.	27 (6)	38 (5)	26 (6)	33 (4)	31 (6)	34 (4)
⑩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것 같다.	15 (10)	18 (12)	19 (9)	21 (8)	18 (9)	19 (8)
⑪ 종종 자살할까 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9 (13)	14 (13)	11 (13)	11 (13)	11 (13)	12 (12)
⑫ 불행한 사람인 것 같다.	17 (9)	23 (9)	14 (12)	12 (12)	17 (11)	12 (12)
⑬ 조심성이 없다.	13 (12)	25 (8)	20 (8)	20 (9)	20 (8)	17 (9)
⑭ 불쾌한 꿈을 자주 꾀다.	5 (15)	7 (15)	3 (15)	3 (15)	5 (15)	6 (5)1
⑮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다.	6 (14)	8 (14)	7 (14)	4 (14)	6 (14)	8 (14)

領域別 分布順位 第6位인 이 領域에 있어서도 상당한 問題點들이 露出되고 있다. 各種의 科學的인 心理檢査와 精神醫學的 接近의 必要性이 示唆되고 있다.

優秀한 高級海技士의 指導力 培養을 위하여서도 教育心理學的 方法을 통한 人格教育의 必要性이 要請된다.



6) 家庭과 家族(HF)

〈表 9〉 HF領域內 各 問項에 對한 學年別 反應狀況

問 項	學 年					專 門
	1	2	3	4	全 體	
① 나에 對한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다.	47 (2)	60 (2)	48 (2)	52 (2)	52 (2)	54 (2)
② 나의  가정적  책임은  무겁다.	53 (1)	69 (1)	68 (1)	63 (1)	63 (1)	66 (1)
③ 가족  中에  엮려되는  환자가  있다.	13 (3)	14 (4)	16 (3)	15 (4)	15 (4)	17 (4)
④ 병  外에   걱정거리가  되는  가족원이  있다.	8 (6)	10 (6)	15 (5)	15 (4)	12 (6)	12 (6)
⑤ 나의  부모는  불건적이다.	10 (4)	24 (3)	16 (3)	21 (3)	18 (3)	22 (3)
⑥ 나의  가정적  배경이  싫다.	10 (4)	11 (5)	15 (5)	14 (6)	13 (5)	13 (5)
⑦ 부모가  이혼했다.	1 (14)	3 (11)	2 (12)	— (15)	2 (13)	— (15)
⑧ 부모가  따로  살고  있다.	3 (9)	3 (11)	4 (8)	3 (11)	3 (10)	4 (9)
⑨ 부모가  불화하다.	2 (10)	6 (8)	4 (8)	9 (7)	5 (8)	4 (9)
⑩ 아버지의  간섭이  심하다.	2 (10)	2 (14)	4 (8)	5 (10)	3 (10)	5 (8)
⑪ 어머니의  간섭이  심하다.	2 (10)	4 (9)	2 (12)	2 (13)	3 (10)	1 (13)
⑫ 형님이나  다른  식구의  간섭이  심하다.	2 (10)	3 (11)	1 (15)	3 (11)	2 (13)	3 (11)
⑬ 아버지를  싫어한다.	4 (7)	4 (9)	4 (8)	7 (9)	5 (8)	3 (11)
⑭ 어머니를  싫어한다.	1 (14)	1 (15)	2 (12)	2 (13)	2 (13)	1 (13)
⑮ 가족이  적어서  외롭다.	4 (7)	7 (7)	6 (7)	9 (7)	7 (7)	9 (7)

全體的인 問題分布順位가 第10位로서 最下順位인 이 領域에서는, “나의 가정적 책임은 무겁다”(63%)와 나에 對한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다”(52%)의 2個 問項에만 集中的으로 反應함으로써 本大學 學生들이 지닌 家庭的 背景의 一般의 特徵을 示唆하는 同時에, 學生들의 家庭形便에 對한 過重한 負擔 意識을 나타내고 있다.

## 7) 道德과 宗教(MR)

〈表 10〉 MR領域內 各 問項에 대한 反應狀況

問 項	學 年				專 門	
	1	2	3	4		全 體
① 저지른 잘못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	13 (6)	27 (5)	16 (6)	20 (5)	19 (7)	22 (6)
② 나는 부도덕한 사람인 것 같다.	6 (10)	10 (9)	8 (8)	8 (9)	8 (9)	6 (11)
③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힘이 약하다.	20 (4)	30 (3)	25 (3)	19 (6)	24 (4)	15 (7)
④ 부정한 유혹에 잘 넘어간다.	8 (8)	11 (8)	14 (7)	14 (8)	12 (8)	9 (8)
⑤ 도덕은 위선이다.	8 (8)	9 (11)	8 (8)	7 (10)	8 (9)	6 (11)
⑥ 나는 불효한 편이다.	13 (6)	21 (7)	21 (5)	49 (1)	26 (3)	22 (5)
⑦ 나는 종교를 갖고 싶다.	20 (4)	23 (6)	25 (3)	28 (4)	24 (4)	27 (4)
⑧ 나는 종교에 심취하지 못하고 있다.	46 (2)	57 (1)	50 (1)	45 (2)	50 (1)	50 (1)
⑨ 신자로서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다.	24 (3)	28 (4)	27 (2)	18 (7)	24 (4)	30 (3)
⑩ 나의 신앙과 가족의 신앙이 다르다.	6 (10)	10 (9)	7 (10)	6 (11)	7 (11)	7 (9)
⑪ 종교는 미신이다.	4 (13)	7 (12)	2 (13)	6 (11)	5 (12)	7 (9)
⑫ 나는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있다.	5 (12)	7 (12)	5 (12)	4 (13)	5 (12)	5 (14)
⑬ “천당”과 “지옥”이 나를 괴롭힌다.	— (15)	3 (14)	1 (14)	1 (15)	2 (14)	6 (11)
⑭ 종교를 바꾸고 싶다.	1 (14)	1 (15)	1 (14)	2 (14)	1 (15)	3 (15)
⑮ 나는 아직도 뚜렷한 종교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62 (1)	35 (2)	7 (10)	42 (3)	37 (2)	38 (2)

問項別로서는 이 領域에서 問題意識이 가장 稀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道德的 墮落이 緊迫한 現實問題로 되고 있다<sup>38)</sup>는 點을 想起할 때 大學生에 對한 倫理的 價値意識의 確立을 위한 새로운 科學的인 接近과 分析의 必要性이 느껴지는 同時에 原MPCL의 이 領域에 包含된 各 問項을 再檢討하여 보다 더 洗練시켜야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38) 羅炳述, 大學生의 倫理教育에 對한 管見. 國民倫理研究, Vol. 3. 서울, 國民倫理教育研究會, 1974. p. 150

8) 學業에의 適應

〈表 11〉 ACW領域內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問 項	學 年				全 體	專 門
	1	2	3	4		
① 공부 할 때에 주의가 산만해 진다.	39 (3)	54 (2)	53 (2)	47 (2)	48 (2)	59 (1)
② 늘 시험이 걱정된다.	32 (6)	24 (12)	19 (11)	11 (13)	22 (13)	24 (12)
③ 공부를 비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당일치기 시험공부를 하고있다)	65 (1)	64 (1)	66 (1)	63 (1)	65 (1)	55 (2)
④ 어떤 학과목에서 기초실력이 부족하다.	36 (4)	40 (4)	31 (4)	46 (3)	38 (4)	50 (3)
⑤ 문장에 의한 표현력이 나쁘다.	28 (10)	37 (5)	29 (5)	41 (4)	34 (5)	28 (10)
⑥ 말로써 발표하기가 어렵다.	29 (9)	35 (7)	29 (5)	28 (7)	30 (6)	31 (7)
⑦ 보다 능률적인 학습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30 (8)	37 (5)	21 (9)	26 (9)	29 (8)	46 (5)
⑧ 기억력이 부족하다.	23 (13)	29 (10)	21 (9)	34 (5)	27 (9)	25 (11)
⑨ 독서가 느리다.	27 (11)	34 (8)	19 (11)	27 (8)	27 (9)	23 (13)
⑩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다.	31 (7)	31 (9)	26 (8)	33 (6)	30 (6)	29 (8)
⑪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35 (5)	21 (15)	16 (14)	8 (15)	20 (14)	49 (4)
⑫ 학업성적이 향상되지 않는다.	16 (15)	22 (14)	28 (7)	25 (10)	23 (11)	12 (15)
⑬ 강의 내용을 요령있게 필기하지 못한다.	24 (12)	28 (11)	19 (11)	20 (12)	23 (11)	29 (8)
⑭ 수면부족으로 수업시간이 피로울 때가 자주 있다.	47 (2)	44 (3)	39 (3)	24 (11)	39 (3)	45 (6)
⑮ 공부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다른 활동을 많이 한다.	17 (14)	24 (12)	10 (15)	11 (13)	16 (15)	15 (14)

이 領域에 包含된 15個 問項은 모두 學生들의 切實한 問題로 浮刻되고 있다. 그 中에서도 特別히 “공부를 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당일치기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에 65%의 學生이 肯定的 反應을 나타내고 있음은 計劃的이고 効果的인 學習方法의 習得과 그 興件助成의 必要性을 示唆하고 있다.

이 領域은 綜合的인 問題分布順位가 第3位인 領域인데 이 밖에도 “공부할 때 주의가 산만해 진다”(48%)등과, “수면 부족으로 수업 시간이 피로울 때가 자주 있다”(39%)와, “어떤 학과목에서 기초실력이 부족하다”(38%)는 問題들이 크게 指摘되고 있다.

學業適應의 問題는 大學生活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領域인 만큼, 앞으로의 學生 指導活動에 있어

(22) 學生指導研究, 第1輯

서 보다 意圖的인 努力이 教育技術的으로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特히 學習活動이 創意的이고 計劃的으로 營爲될 수 있도록 誘導하는 努力은, 이 問題에 對한 全學年에 걸친 強烈한 呼訴로 이루어 보아, 當場의 緊急한 課題로서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9) 將來의 職業과 教育(FVE)

〈表 12〉 FVE領域內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問 項	學 年				專 門	
	1	2	3	4		全 體
① 외국에 유학가고 싶다.	11 (12)	32 (7)	21 (10)	24 (8)	22 (9)	41 (4)
② 취직할 때까지는 결혼을 못할 것이다.	46 (2)	52 (2)	44 (3)	45 (3)	47 (2)	55 (2)
③ 가족은 내가 가지려는 직업을 반대한다.	6 (14)	7 (14)	8 (13)	8 (13)	7 (14)	4 (14)
④ 나의 직업 적성을 과학적으로 알아 보고 싶다.	33 (3)	49 (3)	33 (7)	34 (6)	37 (4)	35 (5)
⑤ 장래에 성공할런지가 불안하다.	26 (6)	31 (8)	24 (8)	24 (8)	26 (8)	28 (7)
⑥ 졸업후에 다른 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	21 (7)	42 (5)	40 (5)	37 (5)	35 (5)	49 (3)
⑦ 교육내용이 다른 학교 또는 학과로 옮기고 싶다.	12 (10)	22 (10)	23 (9)	23 (10)	20 (10)	27 (8)
⑧ 여러 직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싶다.	31 (4)	48 (4)	47 (2)	53 (1)	45 (3)	27 (8)
⑨ 장래에 대한 계획이 소홀하다.	27 (5)	37 (6)	34 (6)	28 (7)	32 (7)	15 (12)
⑩ 졸업후에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봐서 염려된다.	12 (10)	10 (12)	6 (14)	8 (13)	9 (13)	21 (10)
⑪ 졸업후의 병역문제가 걱정된다.	15 (8)	27 (9)	44 (3)	50 (2)	34 (6)	59 (1)
⑫ 장래에 해기사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	47 (1)	57 (1)	55 (1)	41 (4)	50 (1)	33 (6)
⑬ 다른 나라에 이민 가고 싶다.	10 (13)	16 (11)	16 (12)	11 (12)	13 (12)	18 (11)
⑭ 학업을 중단하고 취직하고 싶다.	3 (15)	5 (15)	4 (15)	2 (15)	4 (15)	2 (15)
⑮ 나는 해기사로써 바람직한 자질을 갖지 못한 사람 인 것 같다.	15 (8)	9 (13)	19 (11)	16 (11)	15 (11)	9 (13)

이 領域에서 가장 注目을 끄는 點은 “장래에 해기사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問項에 全 體 學生의 50%가 同意함으로써 15個 問項 中 第1順位의 反應을 보이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같은 傾向은 第1學年 때부터 47%의 높은 反應을 보인 뿐만 아니라 第2·3學年에 이르러 가장 強하게 (57%와 55%) 나타났다가 第4學年에 와서는 41%로 第4順位로 떨어짐으로써 多少問의 現實受容的 態度로 變하는 傾向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나는 해기사로서 바람직한 자질을 갖지 못한 것 같다”에는 겨우 15%의 學生만이 首肯하여 第11順位에 머무는 것을 보면, 問題는 매우 複合的인 要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어려 가지 직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싶다”는 希望은 高學年에 올라 갈 수록 더욱 強하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學生들(37%)이 “나의 직업 적성을 과학적으로 알아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 다른 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35%)는 希望도 상당히 強하게 表示되고 있다.

이 領域에 대한 綜合的인 檢討에서 看過할 수 없는 것은 1) 바다 生活에의 보람·愛着心 乃至 使命感의 昂揚과 아울러 2) 職業問題와 關聯되는 適性檢査 等の 科學的인 心理檢査의 必要性이 學生指導活動에 있어서의 基礎資料로서 切實하다는 點이다.

10) 求愛, 性 및 結婚(CSM)

〈表 13〉 CSM領域內 各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問 項	學 年				全 體	專 門
	1	2	3	4		
① 건전하게 사귀는 여자 친구를 두고 싶다.	75 (1)	70 (1)	56 (1)	42 (2)	61 (1)	75 (1)
② 이상적인 여성과 뜨거운 연애를 하고 싶다.	49 (2)	58 (2)	54 (2)	40 (3)	50 (2)	59 (2)
③ 옷 사람으로부터 이성과의 교제를 지나치게 통제 당하고 있다.	4 (10)	5 (12)	5 (12)	6 (8)	5 (11)	4 (11)
④ 성행위(육체관계)의 경험이 있다.	16 (3)	29 (5)	50 (3)	57 (1)	38 (3)	30 (3)
⑤ 결혼에 대한 조력과 지도를 받고 싶다.	14 (4)	32 (3)	29 (4)	35 (4)	28 (4)	28 (4)
⑥ 나를 사랑해 줄 여인은 없을 것 같다.	11 (5)	32 (3)	8 (8)	5 (10)	14 (6)	11 (8)
⑦ 짝 사랑을 하고 있다.	6 (7)	6 (10)	6 (9)	4 (12)	6 (9)	13 (6)
⑧ 성에 관해서 많이 알고 싶다.	11 (5)	16 (7)	10 (6)	10 (6)	12 (7)	15 (5)
⑨ 성경험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있다.	4 (10)	10 (8)	9 (7)	7 (7)	8 (8)	7 (9)
⑩ 결혼 문제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5 (8)	18 (6)	22 (5)	24 (5)	17 (5)	13 (6)
⑪ 연애를 해서는 안될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다.	4 (10)	9 (9)	5 (13)	4 (12)	6 (9)	4 (11)
⑫ 애인이 둘 이상 있어서 선택에 고민하고 있다.	3 (13)	6 (10)	6 (9)	6 (8)	5 (11)	4 (11)
⑬ 애인을 뺏길까봐 근심하고 있다.	3 (13)	2 (14)	3 (14)	3 (14)	3 (14)	3 (14)
⑭ 동성에 대하여 성적 애정을 느낀다.	2 (15)	3 (13)	1 (15)	1 (15)	2 (15)	2 (15)
⑮ 여자 문제로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2 (15)	2 (15)	6 (9)	5 (10)	4 (13)	7 (9)



(24) 學生指導研究, 第1輯

위 表에서 “이상적인 女性과 뜨거운 연애를 하고 싶다”(50%)는 理想主義 보다 “진진하게 사귀는 여자 친구를 두고 싶다”(61%)는 現實主義 쪽이 10% 以上の 支持를 받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青年 學生들이 가지고 있는 女性觀의 一端을 反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全体 學生의 38%가 性行爲의 經驗을 告白하고 있으며, 이는 學生의 順位에 따라 16%, 29%, 50%, 57%의 順으로 高學年에 올라 갈수록 增加하고 있으며 特히 第2學年과 第3學年의 사이에서 急激히 增加되고 있다는 것은 注目할 事實이다.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17%, “결혼에 대한 조력과 지도를 받고 싶다”가 28%이며 “나를 사랑해 줄 여인은 없을 것 같다”가 14%로서 이 領域에서 달리 深刻한 問題性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少數의 問題는 單純히 少數라는 理由만으로서 소홀히 다루워져서는 아니 될 것이며, 오히려 少數의 問題인 만큼 그 個人에 있어서 問題의 深刻性은 더 하다는 點을 勘案한다면, 教育現場에 있어서 그들에 對한 꾸준한 注意깊은 觀察과 細心한 指導가 뒤 따라야 할 것임은 勿論이다.

4. 上·下順位 30個 問項에 대한 反應狀況

10個 問題領域에 걸친 150個 全 問項 中에서 各 問項에 대한 反應率을 基準으로 最上順位로부터 15個 問項과, 最下順位로부터 15個 問項 씩을 찾아 내어, 그 學年別 反應狀況을 比較하면 <表14> 및 <表15>와 같다.

<表 14> 上順位反應 15個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全体 順位	領 域	問 項	全 体 反應率	學 年 別 反 應 率				專 門
				1	2	3	4	
①	FLC	충분한 영양 섭취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85.50	81	89	92	80	71
②	SPR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72.00	73	80	64	71	81
③	FLC	좀 더 많은 사색의 시간을 갖고 싶다.	69.25	84	78	66	49	84
④	SRA	음악, 미술 기타 예술의 세계에 접촉할 기회가 적다.	68.00	64	78	72	58	59
⑤	SPR	학교 생활에 있어서 상·하급생 간의 인 간적인 이해가 어렵다.	65.50	68	74	57	63	68
⑥	ACW	공부를 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당일 치기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64.50	65	64	66	63	55
⑦	HF	나의 가정적 책임은 무겁다.	63.25	53	69	68	63	66
⑧	CSM	진진하게 사귀는 여자 친구를 두고 싶다.	60.75	75	70	56	42	75
⑨	FLC	취미, 오락 기타에 필요한 사소한 잡비 가 부족하다.	59.75	51	65	66	57	53
⑩	SRA	취미, 오락활동을 할 기회가 적다.	58.25	68	66	56	43	72
⑪	FLC	교내생활에 있어서 보건, 위생상의 불 안을 느끼고 있다.	55.25	50	70	54	47	53
⑫	SRA	잘 한다고 생각되는 특기가 없다.	53.25	56	63	46	48	45
⑬	SRA	사고 활동을 너무 적게 한다.	52.25	46	65	54	44	50
⑭	HF	나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다.	51.75	47	60	48	52	54
⑮	PPR	공상을 많이 한다.	51.25	46	59	50	50	59

위 表에서 “충분한 영양 섭취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가 85.5%로서 가장 높은 反應率을 보인 問項이며, “공상을 많이 한다”가 51.25%로서 第15順位로 反應한 問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全体 學生의 半數 以上이, 그것의 客觀的 事實의 與否는 어쨌던 間에, 그 것을 現實的인 「問題」로서 意識하고 있는 것이다.

이 範圍에 屬하는 問題들을 領域別로 간추려 보면, FLC와 SRA가 各各 4個 問項으로 가장 많고 SPR와 HF가 各各 2個 問項이며, ACW, CSM 및 PPR가 各各 1個 問項 씩으로 되어 있어 全体的인 問題領域別 分布順位와 거의 一致하고 있다.

2) 下順位 反應 15個 問項

〈表 15〉 下順位反應 15個 問項에 대한 學年別 反應狀況

全体 順位	領 域	問 題	全 体 反應率	學 年 別 反 應 率				專 門
				1	2	3	4	
150	MR	종교를 바꾸고 싶다.	1.25	1	1	1	2	3
"	MR	“천당”과 “지옥”이 나를 괴롭힌다.	1.25	—	3	1	1	6
148	HF	어머니를 싫어한다.	1.50	1	1	2	2	1
"	HF	부모가 이혼했다.	1.50	1	3	2	—	—
"	HPD	폐결핵에 걸려 있다.	1.50	1	—	3	2	2
145	HPD	내분비선에 이상이 있다.	1.75	2	2	1	2	8
"	CSM	동성에 대하여 성적 애정을 느낀다.	1.75	2	3	1	1	2
143	HF	형님이나 다른 식구의 간섭이 심하다.	2.25	2	3	1	3	3
142	HPD	심장에 이상이 있다.	2.50	2	3	3	2	2
"	HPD	성기 계통에 이상이 있다.	2.50	1	3	3	3	5
"	HF	어머니의 간섭이 심하다.	2.50	2	4	2	2	1
139	CSM	애인을 뺏길까봐 근심하고 있다.	2.75	3	2	3	3	3
138	HF	부모가 따로 살고 있다.	3.25	3	3	4	3	4
137	FVE	학업을 중단하고 취직하고 싶다.	3.50	3	5	4	2	2
"	SPR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	3.50	2	6	2	4	2

위 表에서 最下順位 反應率을 나타낸 “종교를 바꾸고 싶다”와 “천당과 지옥이 나를 괴롭힌다”가 各各 1.25%이고 그로부터 15개 問項의 上限인 “학업을 중단하고 취직하고 싶다”와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가 各各 3.5%인바, 그러므로 이 範圍內의 問題들은 다 最大限 全体 學生의 3.5% 以下의 反應을 보이고 있음에 不過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低調한 反應은 어디까지나 本 大學 學生 全体의 것으로서, 學生 個人에 있어서는, 反應의 強度 與否가 반드시 그 問題性的 深刻性的 強度 與否를 決定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問題學生에 對한 擔任指導教授의 보다 더 科學的이고 誠實한 生活指導의 必要性이 要望됨은 勿論이다.

(26) 學生指導研究, 第1輯

下順位 反應 15個 問項을 다시 問題領域別로 간추려 보면, HF가 5개 問項으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HPD로서 4개 問項이 있으며, MR과 CSM이 各各 2개 問項 적이고, FVE 및 SPR가 各各 1개 問項 적 섞여 있을 뿐이다. 따라서 FLC, SRA, ACW 및 PPR領域에서는 위 反應率처럼 低調한 反應을 보이는 問題는 하나도 없다는 事實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 5. 結論 및 提言

지금까지 考察하여 온 結果에 따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다.

- 1) 本 大學 學生問題의 領域別 分布順位는 FLC—SRA—ACW—SPR—FVE—PPR—CSM—MR—HPD—HF의 順으로서, 美國의 大學 및 國內의 他 大學들과 比較하여 相當한 差가 發見된다.
- 2) FLC領域에서 顯著히 높은 問題性을 보임으로써 他 大學들에 比하여 뚜렷한 特性이 發見된다.
- 3) FLC와 SRA領域에의 強한 反應은, 國內 大學生問題의 一般的 傾向과 水準을 壓倒하고 있다.
- 4) 問題意識의 偏重인 傾向이 짙다.
- 5) 學年水準에 따른 問題性的 差가 僅少하며, 따라서 全体 學生 間의 問題意識의 同質性이 強하다.
- 6) 問題意識의 여러 가지 側面으로부터 本 大學 環境의 制度的인 特殊性이 強하게 反映되고 있음이 確認된다.
- 7) 本 大學 學生問題에의 接近에 있어서는 本 大學의 特殊한 教育目的에 대한 理解로부터 出發해야 할 必要性이 있음이 示唆된다.

以上과 같은 結果와 結論에 立脚하여 本 調査研究는 아래의 몇 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1) “營養” 問題에 대한 學生들의 主觀的인 憂慮를 解消하기 위하여 ⑦ 寄宿舍 給食內容에 대한 營養學的 分析을 通한 客觀的 事實을 알려주고, ㉠ 그 過程에서 事實上的 改善點의 有無를 檢討하며 ㉡ 制限된 國家豫算下에서 學校 當局이 이 問題에 대하여 얼마나 誠意있는 努力을 하고 있는가를 弘報하여 줄 必要가 있다.

2) 꿈과 希望이 있어야 할 젊은 大學生의 生活에 있어서 規律的·學究的 生活와 함께, 情緒的 社會(交)的 娛樂的인 活動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活動에의 欲求가 充足되지 못할 때, 「問題」로 意識되고, 그러한 欲求不滿이 非正常的인 곳에 發散되기 쉬우므로 健實하고 教育的인 이 方面의 活動을 위한 施設과 興件을 마련하여 주고 또 거기에 따르는 適切한 指導가 있어야 하겠다.

3) 團體生活의 統制로부터 逸脫하고 싶다는 強烈한 學生들의 反應은, 오늘날 젊은 世代의 外向的 官能的 衝動의 一般的인 傾向이며 또 規制的 寄宿舍制度의 實施에서 오는 結果인듯 하다. 따라서 學生들의 逸脫意欲을 健全한 學校生活 속으로 內實化시켜 주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위에서 言及한 情緒的·社會(交)的 및 娛樂的 活動을 위한 施設과 興件의 助成 以外에, 本 大學의 特殊한 團體組織生活에 있어서의 人間的·心理的 關係에 對한 專門的 研究가 要望된다. 同時에 學生

들의 苦悶을 털어 놓을 수 있는 渠道(channell)이 制度的으로 더욱 強化되어 야 하며 이 點에 있어 서 指導教授의 보다 더 積極的이고 能率的인 活動이 크게 要望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指導教授의 過 重한 授業量과 業務量의 減少 및 財政的인 뒷받침이 아울러 要望된다.

4) 大學生의 本質的·核心的 要件이어야 할 學究的인 學園雰圍氣의 助成이 時急하고 切實하다.

學業適應의 問題領域이 10箇의 全 領域 中에서 第3順位에 있다는 事實은 一見 그 順位만으로서는 上順位의 問題로서 大學生 다운 바람직한 反應인 듯 보이나, 事實上 그것은, 第1·2順位인 非學究的 問題領域(FLC, SRA)에의 높은 反應率과 比較하여 볼 때, 또 大學生의 本來的 關心의 主對象이 學 究的 問題이어야 한다는 見地에서 볼 때, 上順位라기 보다는 오히려 下順位의 바람직하지 못한 反 應率이라는 點에 留意하여야 하겠다.

특히 “당일 치기 시험 공부”라는 要領中心主義的 學習態度, 授業時間 中의 睡眠과 “思索”時間의 不足 等의 學業不適應의 原因은, 學生 自身의 側面과 本 大學의 制度的 側面의 兩 側面에서 科學的 으로 徹底히 究明되어야 하겠다.

5) 海技士로서의 資質에 對한 自信感을 喪失하지 않으면서도 海技士 以外의 職業에 從事하고 싶 다는 데 全體學生의 半이 同意하고 있으며 더구나 第2·3學年에 이르러 過半數가 넉었다가 第4學 年에 와서 多少 現實受容的인 傾向을 보이나 아직도 相當數에 이르고 있다는 事實은, 이 問題가 第 1次的으로 是 海技士養成을 目標로 하는 本 大學의 教育目標에 비추어 看過될 수 없는 重大한 問題 임을 말하여 준다.

그 原因이 歷史的·社會的인, 보다 더 根本的인 點에 內在하는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本 大學의 教育力量만으로서 是 勘當키 어려운 問題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우선 職業問題와 關聯되는 適性檢査의 實施, 職業輔導情報資料의 提供과 아울러, 바다 生活에 대한 보람과 愛着心 또는 使命感의 昂揚을 위한 보다 더 積極的인 教育이 要望된다. 그리고 本校 在學生에게 대해서 뿐 만 아니라 初·中·高 校生에 對하여서 海洋思想의 鼓吹運動이 展開되어야 하겠으며 그 運動의 中樞 的·先驅的 役割을 本 大學이 擔當할 것이 必要하며 바람직하다.

6) 思春期 男性들만으로서 營爲되는 寄宿舍生活, 卒業後의 職業의 特殊性에 비추어 健全한 性倫 理·結婚觀에 對한 教育的 配慮가 마땅이 있어야 하겠다.

7) PPR의 領域은 비록 下順位(第3順位)의 反應을 나타낸, 所謂 少數者의 問題이나 그 理由만으 로서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아니 될 問題라고 생각된다. 高等商船士官으로서 必須的인 個人的 指導 力(Leadership)의 問題는 이 領域과 깊은 關聯을 맺고 있다. 따라서 個個人의 問題에 對한 精神醫 學的 接近이 必要하며 거기에 따른 專門 知識의 支援이 要望된다. 可能하면 이 方面의 專門醫의 確 保가 바람직하다.

8) 앞으로 本 大學 學生指導의 計劃樹立과 그 實踐을 위하여, 또 本 調查研究에 잇달아 進行되어 야 할 研究課題로서 다음과 같은 作業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가) 本 大學 學生問題를 보다 더 正確하게 診斷하기 위하여, 이 調查研究에 使用된 MPCL의 內 容을 더욱 洗練시켜 갈 共同作業이 必要하다.

(28) 學生指導研究, 第1輯

나) 本 調查研究에 나타난 學生들의 主觀的인 問題傾向에 對한 客觀的인 事實의 與否의 究明과 보다 더 具體的인 改善策을 위한 調查研究가 各 問題領域別로, 各 問題別로 더욱 細分化되어 集中的으로 實施되어야 하겠다.

다) 學生 生活指導活動의 効率化에 必要한 基本資料인 學生 個個人의 生育史의 背景에 관한 基本資料의 蒐集과, 適性·知能·人性·性格·興味 및 自我概念 等に 대한 各種의 科學的 心理檢査가 實施되어야 하겠다.

9) 위에 提言한 모든 課題를 解決하기 위하여서는 學生 生活指導 問題에 대한 學校 行政責任者, 教職員 및 各 行政部署 間의 보다 더 깊은 關心과 理解, 보다 더 積極的인 協力이 要望된은 勿論이고, 무엇 보다도 學生指導研究所의 研究機能面의 活動이 強化되기 위한 人的·物的 補強이 時急히 要請된다.

## 6. 要 約

本 調查研究는 1) 各 擔任 指導教授의 學生과의 面談指導의 効率化를 期하고 2) 本 大學 學生 全體의 問題를 把握하여 學生指導의 基本方策의 設定, 學生指導研究所의 事業計劃의 樹立을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한 目的으로 다음과 같은 問題들을 알아 보려고 하였다.

1) 本 大學 學生들이 가지고 있는 問題(關心·苦悶, 欲求 等)는 어떠한 問題領域에 얼마만큼 分布되어 있는가?

2) 本 大學 學生들의 問題意識은 他大學生들의 그것과 比較하여 어떠한 特性을 가지고 있는가?

3) 本 大學 學生들의 苦悶(問題)은 具體的으로 어떠한 것들인가?

4) 本 大學 學生들이 가장 緊迫하다고 느끼고 있는 問題와 덜 緊迫하다고 느끼고 있는 問題는 具體的으로 무엇인가?

위의 問題들을 알아 보기 위하여 使用된 道具는 「Mooney Problem Check List」를 基本資料로 參考하되 本 大學의 實情에 알맞게 翻案한 「대학생문제 체크리스트」였으며 1975. 5. 9. ~30의 期間 동안에 總學生 827名을 對象으로 實施하여 얻은 結果와 그 結論은 다음과 같다.

1) 領域別 反應順位는, FLC—SRA—ACW—SPR—FVE—PPR—CSM—MR—HPD—HF의 順으로 나타났다.

2) 特히, FLC, SRA의 領域에서는 우리나라 大學生 問題의 一般的 水準을 壓倒하는 강한 反應을 나타내어 本 大學 學生 問題의 한 特色으로 浮刻되었다.

3) 學年 水準間의 差異는 比較的 僅少하였으며, 오히려 全体 學生間에 問題意識의 同質性이 強하게 示唆되었다.

4) 全体 反應의 分布狀況으로 보아, 問題意識이 몇 個의 問題領域에 偏重하는 傾向이 強하였다.

5) 問題意識의 여러 側面에서, 本 大學 教育環境의 制度的 特殊性이 잘게 反映되었다.

6) 보다 더 選別力 높은 大學生問題의 調查 道具를 얻기 위하여, 本 研究에서 使用된 「大學生 問題체 체크리스트」를 더욱 洗練시킬 必要性이 있음이 示唆되었다.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blems  
that the Students of Korea Merchant Marine  
College are Concerned about**

**Lee, Young Tae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professors' guidance and counselling for the students assigned to them by investigating the problems of the students but also to establish a fundamental principle of guidance by collecting materials needed for the activity program of The Student Guidance Center.

The major items investigated are as follows:

1. What problem areas are the interests of the students distributed over and how deeply are they concerned about?
2.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e students of this college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students of other colleges and universities?
3. What are the problems that the students of this college are interested in?
4. What are the more urgent problems and the less urgent ones?

The College Student Problem Check List,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s of this college on the basis of the Mooney Problem Check List was used as a tool in order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students.

An investigation on the problems of 827 students was conducted from May 9, 1975 to May 30, 1975.

As a result of the above mentioned investigation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obtained.

1. The order of the problem areas attracting the interests of the students is as follows:  
FLC-SRA-ACW-SPR-FVE-PPR-CSM-MR-HPD-HF
2. The students of this college make stronger responses to the problems areas such as FLC and SRA than those of other colleges and universities.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fact is a unique feature of the problems of this college.
3. Little difference in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e students is distinguished between those of different year grades, and a homogeneity of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e whole students body without regard to year grade is clearly recognized.
4. A marked tendency to the concentration of students' interests in some particular problem areas is found out in the distribution of students' responses.
5. The uniqueness of the educational system and environment of this college is reflected in many areas of the problems.
6. The necessity for improving the College Student Check List used in this study with reference to Mooney Problem Check List is suggested in order to obtain a more effective tool for finding out the problems.

## 參 考 文 獻

1. 沈載炯; 學生生活指導研究所의 運營方案 —教育大學 學生指導研究所를 中心으로—, (仁川教育大學 學生指導研究所 第3輯, 1975. 2.)
2. 劉在奉; 生活指導論, 서울: 法文社, 1973.
3. 尹八重; 가이던스 카운슬링, 서울: 教育出版社, 1973.
4. 尹八重; 서울教育大學生이 지닌 問題의 內容과 程度, 학생지도 연구, Vol. 1. (서울教育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2)
5. 李榮德; 鄭元植, 生活指導의 原理와 實際, 서울: 教學圖書, 1972.
6. 金炳廈; 全宰一, 大學生 問題 체크리스트에 의한 大學生의 問題傾向, 學生指導研究, Vol. 1, No. 1. (韓國社會事業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3)
7. 李明子; 大學新入生の 問題에 關한 研究. 학생지도연구, Vol. 7, No. 1. (경북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1974)
8. 이관용; 대학생 문제에 관한 일 연구, 學生研究, Vol. 7, No. 2. (서울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1970. 6)
9. 서울 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大學生 問題 체크리스트結果, 學生研究, Vol. 3. 1966.
10. 李元浩; 大學生 問題체크리스트를 통한 在學生의 問題調查, 研究報, Vo. 3. (釜山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66)
11. 한법숙·한덕웅; 대학생문제조사, 학생지도연구, Vol. 1, No. 1. (성균관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1971)
12. 愼鏞日; 師大生の 問題傾向 調查研究, Vol. 2. (公州師範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3)
13. 愼鏞日; 仁荷大生の 問題傾向 調查研究, 學生指導研究, Vol. 1. (仁荷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74)
14. 安德子; 本校生の 問題傾向調查, 學生生活研究, Vol. 10. (梨花女子大學校 學生生活指導研究所, 1974)
15. 金學守·安昌圭; 大學生의 個人的 問題에 대한 考察, 학생지도연구, Vol. 5. No. 1. (경북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1972)
16. 鄭駙換; 大學生들이 지니는 問題에 대한 小考, 教大生을 中心으로, 學生指導研究, Vol. 2. (仁川教育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74)
17. 羅炳述; 大學生의 倫理教育에 對한 管見, 國民倫理研究, Vol. 3, (서울, 國民倫理教育研究會, 1974)
18. Freeley, Austin J.; Argumentation and Debate, 2n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66.
19. Hatch, R. N. & Dressel, P. L.; Guidance Service in the Secondary School, Dubuque, Iowa: W. M. C Brown Co, 1953,
20. Traxler, A. E.; Techniques of Guidance, New York; Harpcr & Brothers Publishers, 1945.
21. Mooney, R. L., & Gordon L. V.; Manual for the Mooney Problem Check List, New York: Psychological Corporation, 1960.